

인도네시아에 물 산업 현지 진단팀 파견

- 한국형 환경정책 수출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 촉진

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물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.

물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은 학계, 전문기관, 기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, 협력국의 환경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의 환경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현지 환경정책 개선방안 및 녹색산업 협력사업을 찾아낸다.

현지 진단팀의 첫 협력국인 인도네시아는 강우량은 충분하지만 수자원 관리 및 상하수도 등의 분야에서 정책 지원과 녹색 기반시설이 부족해 안전한 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.

이번 현지 진단팀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(수자원, 상하수도) 및 환경산림부(유역관리) 정책 담당자와 심층적인 정책 분석과 현장 점검을 거쳐 한국형 환경정책에 기반한 안전한 물관리 정책과 협력사업을 제안한다.

또한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환경정책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물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.

환경부는 해외사업 전문가 및 다자개발은행 사업 경험자 등의 조언을 받아 환경 협력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한 21개 협력국의 재외공관을 통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환경 난제와 정부간 협력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고 현재까지 10개국*에서 20개 환경 난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상태다.

* 가나, 네팔, 베트남, 이집트, 인도네시아, 에티오피아, 캄보디아, 콜롬비아, 키르기스스탄, 페루

환경부는 올해 11월 말 콜롬비아에 순환경제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을 파견하고, 내년부터 환경 난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감축, 순환경제, 물 산업의 3개 분야별 맞춤형 현지 진단팀을 파견하여 녹색산업 해외 진출 대상국을 다변화할 예정이다.

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“녹색산업은 환경정책에 따라 수요가 발생한다”라며, “한국형 환경정책 수출을 통해 전 세계 환경 난제 해결에 기여하고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촉진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인도네시아 녹색산업 현지진단팀 파견계획. 끝.
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녹색산업 해외진출지원단	책임자	단 장	장이재 (044-201-7560)
		담당자	사무관	정동진 (044-201-7564)
	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	책임자	실 장	임현정 (032-540-2170)
		담당자	선임연구원	전창화 (032-540-2173)

□ (배경) 협력국의 제도와 기술을 정비하여 G2G 협력체계 강화 및 해외 프로젝트 발굴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

□ (목적) 인도네시아의 환경난제*인 물관리 분야(상·하수도, 수자원, 유역관리)에 대한 현지진단을 통해 정책방안 제안 및 협력사업 발굴 등

* 수자원이 풍부함에도 상·하수도 등 환경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하천수, 지하수 등 수질오염 심각 (자카르타 인구의 2% 정도만 공공하수처리 연결, WB보고서)

□ (기간) `23.10.16(월) ~ `23.10.21(토), 총 4박 6일

□ (파견국) 인도네시아(자카르타, 베카시, 찰레본)

□ (출장자) 해외진출지원단장, 물분야 전문가, 기술원 관계자 등

□ (주요일정) 인도네시아 물관리 정책(상·하수도, 수자원, 유역관리) 정부기관 (공공사업주택부, 환경산림부 등) 협력회의 및 현장방문

10.16(월)	10.17(화)	10.18(수)	10.19(목)	10.20(금)
출 국 (인천 → 자카르타)	공공사업주택부 협력회의(수자원국)	환경산림부 (유역 수질관리)	찌마눅 찰상가릉 유역청 협력회의 (유역 수자원관리)	현장방문 (이동식 정수기, 시노팩스社)
	공공사업주택부 협력회의(주거국)	현장방문 (정수시설 운영기업, 그레넥스社)	현장방문 (찌마눅 찰상가릉 유역)	귀 국 (자카르타 → 인천)